

보도자료

2011년 11월 30일(수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장 이상학 (750-2510)
통신정책기획과 황근별 사무관 (750-2512) hwangsta@kcc.go.kr

방통위, 2010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발표

- 시내전화 KT, 이동전화 SKT 지배적사업자 지위 유지키로 -

-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시장의 성과, 시장구조, 사업자 행위, 이용자 대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0년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.

※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'99년부터 매년 실시

- 경쟁상황 평가 결과 시내전화 분야에서 KT는 매출액의 90.8%, 가입자의 86.3%를 점유하고, 가입자망의 필수설비적 성격에 따른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어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또한, 이동전화 분야에서 SKT는 매출액의 54.4%, 가입자의 50.6%를 점유하고, 주파수 제약 등에 따른 경쟁압력의 부족 등에 따라 여전히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시외전화 분야는 KT가 매출액의 81.2%, 가입자의 82.2%를 점유하고 있는 비경쟁시장으로 나타났으나, 매출액 및 가입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약한 시장으로 평가되었다.

※ KT 시외전화 매출액 : 6,094억원('08년) ⇒ 4,997억원('09년) ⇒ 3,842억원('10년)

※ KT 시외전화 가입자 : 18,116천명('08년) ⇒ 16,577천명('09년) ⇒ 14,705천명('10년)

- 한편, 인터넷전화, 국제전화, 초고속인터넷, 전용회선 분야는 전년과 동일하게 경쟁시장으로 평가되었다.

□ 2010년도 통신시장은 기존 유선전화에 대한 인터넷전화의 대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「 시내·시외·인터넷전화 」의 동일시장 확정 가능성과 규제이슈에 대한 검토를 과제로 남겼다.

□ 또한,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도 통신시장의 주요 경쟁 이슈를 분석·평가하고 아래와 같이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.

▲ mVoIP 및 MIM 확산은 스마트폰 가입자를 중심으로 음성서비스나 문자서비스에 대한 경쟁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

※ MIM(Mobile Instant Messaging) :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한 문자 및 채팅서비스

※ 이동전화 영업수익 : 22.6조원('09년) ⇒ 22.9조원('10년) ⇒ 11.3조원('11년 상반기)

※ 이동전화 문자발송건 : 1,191억건('09년) ⇒ 1,201억건('10년) ⇒ 544억건('11년 상반기)

▲ MVNO 진입은 주파수 제한에 따른 진입장벽 완화 효과 등으로 경쟁압력이 예상되므로 경쟁상황 변화에 대한 관찰이 필요

※ MVNO 매출액 추이 : 1,954억원('09년) ⇒ 1,293억원('10년) ⇒ 1,068억원('11년 9월)

▲ 결합상품 확대에 따른 지배력 전이의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, 점유율 증가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

※ 결합시장의 KT 점유율 : 인터넷전화 포함 34.1%('09년) ⇒ 40.5%('10년), 초고속 인터넷 포함 49.9%('09년) ⇒ 50.4%('10년), IPTV 포함 41.0%('09년) ⇒ 49.6%('10년)

▲ 인터넷 포털의 경우에도 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,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경쟁상황 평가를 확대할 필요

※ 네이버는 페이지 뷰 점유율 45%(다음 29%), 검색점유율 72.6%(다음 18.2%)로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, 온라인 광고시장 중 검색광고 시장에서 매출액 점유율 71%(다음 17%)로 시장지배력을 보유

□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'11. 12월중으로 「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」, 「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·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」, 「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·절차·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」 등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,

□ 향후 그간의 경쟁상황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- ▲ 전년도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지정·고시하던 지배적 사업자를 통신시장 경쟁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에 따라 지정·고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
- ▲ 경쟁상황 평가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에서 주요 부가통신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통신시장 생태계 전반에 대해 경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
- ▲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
- ▲ 단독지배력 평가를 결합지배력 평가가 포함되도록 확대하고, 수평적 규제체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

붙임 1. 2010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 1부
2. 기간통신서비스 시장획정 결과 1부. 끝.

2010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

I. 유선전화	경쟁상황	주요 평가 의견
①시내전화	비경쟁	○ KT 시장점유율 : 매출액 90.8%, 가입자 86.3% ○ 가입자망 필수설비 성격에 따른 진입장벽이 존재 ⇒ KT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유지 필요
②시외전화	비경쟁	○ KT 시장점유율 : 매출액 81.2%, 가입자 82.2% ○ 진입장벽이 낮고, 매출액 및 가입자 점유율 감소 추세 ⇒ KT의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약함
③인터넷전화	경쟁	○ LGU+ 시장점유율 : 매출액 32.5%, 가입자 30.2% ○ 진입장벽이 낮고, 요금 및 마케팅경쟁 활발
④국제전화	경쟁	○ SK텔링크 시장점유율 : 매출액의 25.8% ○ 사업자 전환장벽이 낮고, 요금 및 마케팅경쟁 활발
II. 이동전화	비경쟁	○ SKT 시장점유율 : 매출액 54.4%, 가입자 50.6% ○ 서비스 품질은 우수하나, 경쟁압력과 시장성과가 미흡 ⇒ SKT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유지 필요
III. 초고속 인터넷	경쟁	○ KT 시장점유율 : 매출액 47.4%, 가입자 43.1% ○ 속도 및 품질측면 기술도입 활발
IV. 전용회선	경쟁	○ KT 시장점유율 : 39.5%, LGU+ 시장점유율 : 34.9% ○ 속도 및 품질 등에 따른 다양한 상품이 제공

기간통신서비스 시장획정 결과

